

대기업 SSM 기습입점 시골까지 무차별 강행

국회 계류 '상생법' 조속 처리해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유통법으로 규제 한계... 시장 상인들 '대처 미흡' 분통

대기업 유통업체가 SSM에 대한 각종 규제가 본격화되기 전 관련 법망을 피해 우회입점, 기습개점에 농촌 지역까지 SSM출점을 강행하고 있어 지역 사회에 비난을 사고 있다.

유통법 개정안의 단점을 보완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의 처리가 지연되는 틈을 이용해 대기업들이 SSM출점을 서두르고 있어 지역 상인들과의 마찰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오후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등 지역 중소상인 20여명이 홈플러스 동광주점에서 무분별한 SSM 진출에 대한 항의 뜻으로 5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구입한 뒤 10원, 50원, 100원짜리 동전으로 계산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퍼포먼스는 '중소상인이 살아야 광주 경제가 산다'는 주제로 '윤리 소비 시민행동' 캠페인 일환으로 열렸다.

이들은 시민들에게 소비자가 지역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윤리적인 소비를 실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북구 삼각동 대형마트를 비롯해 서구 치평동·중앙동, 광산구 우산동에 SSM 개점을 강행할 경우 홈플러스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새벽 2시에는 삼성테스코가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우산시장 인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 예정지에 기습적으로 물품반입을 시도하면서 시장 상인들과 심한 충돌을 빚었다.

삼성테스코 측은 시장상인들이 점포 입구에 막아둔 차량 2대를 들어내고 집기류 등을 반입했다가 상인들과

몸싸움이 벌어지자 현장에서 철수했다.

광산구 우산시장의 경우 마등록 시장이기 때문에 유통법 개정안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개점을 강행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통과된 유통법 개정안은 지자체에 등록된 전통시장 인근 500m 이내 지역만 SSM 출점을 규제하고 있어 우산시장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또 사업조정중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품앗이점과 치평점도 가맹점 형태로 전환해 개점을 강행하면서 인근 상인들과 대치중인 상태다.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대도시에서 SSM 출점이 어려워지자 최근에는 농촌까지 파고들어 SSM을 개점하고 있어 시골 장터 상인들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곡성군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이달 초 롯데슈퍼 가맹점이 곡성군 곡성읍내에 문을 열면서 시장통 상인들 매출이 40% 가량 줄었다"며 "시골 사람들이라 대처가 미흡했던 틈을 타 기습개점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역 상인들은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SSM 개점을 막기 위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생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통법 개정안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던 상생법에는 가맹점 형태의 SSM도 사업조정 대상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된 유통법에는 이미 출점한 SSM에 대해선 등록을 마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통시장 주변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쌍둥이 법



13일 오후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등 지역 중소상인들이 광주시 북구 각화동 홈플러스 동광주점 지하 매장에서 무분별한 SSM 진출에 항의하는 뜻에서 물품을 구입한 뒤 동전으로 지불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안'인 상생법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안처리가 미뤄지면서 대형 유통업체들은 SSM 입점 뒤 일시정지 권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심야에 기습 개점까지 강행하는 등 점포수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태다.

한편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등 지역 중소상인들은 15일 오후 1시 광주시 북구 각화동 홈플러스 동광주점 앞에서 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진보연대 등과 함께 '시민사회 합동 기자회견'을 연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조 강경과 재선출

임단협 재검토 요구... 노사관계 곳곳 암초

금호타이어 노조가 재선거를 통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함에 따라 노사관계가 5개월만에 정상적으로 복원됐다. 하지만 신임 노조 집행부가 '임금 5%·상여금 200% 반납' 등 지난 4월 체결한 임금 및 단체협약의 재검토를 요구해 앞으로 진행될 노사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

14일 금호타이어 노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실시된 제4기 대표지회장(위원장) 등 임원 재선거 결과, 단독 출마한 김봉갑 후보가 위원장으로 재선출됐다. 수석부위원장은 김철원, 사무국장은 강경호, 곡성지회장에 정승강 후보 등이 함께 당선됐다.

신임 집행부는 전체 조합원 3518명 중 3365명(95.7%)이 투표에 참여해

88.2%(2968명)의 높은 지지율로 재선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신임 집행부는 그동안 제기됐던 법적 정당성 시비를 벗고 명실상부한 노조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공목적인 양보 교섭을 했다"며 이유로 전임 3기 집행부를 탄핵하고 집행부를 구성했지만, 법원으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회사 측도 이들을 교섭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중도파 등 일부 조합원들은 법적 효력을 문제 삼아 노-노-노 등이 벌어지는 등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들은 그동안 전임 집행부 탄핵과 임단협 재검토, 워크아웃 중

쟁의행위 결의하는 등 이른바 '강경파'로 회사 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향후 노사협상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임 집행부는 14일 당선 성명을 통해 "노조의 일반적 희생만 강요한 4월 합의서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체불임금 소송, 건강검진 거부, 임금·상여금 반납 무효 요구 등 뼈아픈 임금과 권리 찾기를 위해 채권단과 금융자본을 상대로 온 몸을 던져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노조 집행부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새로 구성된 만큼 노사관계의 정상화 길이 트였다"며 "조속히 노사협의회를 가동해 단체협약 보충협약 등 산적한 현안 등을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아차 노조 조합비 1만4200원 인상 확정

기아자동차 노조가 실시한 '조합비 1만4200원 인상안'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70%가 넘는 높은 찬성률로 인상이 가결됐다. 이번 찬반투표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에 따라 생긴 무급 전임자들의 임금보전을 위해 노조가 지난달 대의원대회를 열어 조합비를 대폭 인상한

데 대해 일부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실시됐다.

14일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광주공장을 비롯해 전국 5개 지회에서 동시에 실시한 '조합비 인상규칙 개정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3만187명 중 2만7860명(투표율

92.3%)이 참여해 이 중 74.0%(2만7860명)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광주공장은 투표인원 6170명 중 4747명(76.9%)이 찬성표를 던져, 소하리(73.9%)·화성공장(69.1%)보다 찬성률이 높았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조는 1인당 조합비 1만4200원씩을 인상해 3만여명의 조합원들로부터 1년에 50여억원의 조합비를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우수 중소기업 기획전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지역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16~21일까지 현대백화점 광주점 2층 특별판매장에서 '광주·전남 우수 중소기업 상품 기획전'을 개최한다.

3회를 맞는 이번 기획전에는 기술력을 갖춘 생활용품 및 식품을 제조하는 우수 중소기업 9곳

(광주 4곳, 전남 5곳)이 참여해 우수제품을 선보인다.

주요상품으로는 천연 한방성분으로 만들어진 한방 바이오 안대, 허브점질팩, 온도센서 및 LED를 이용해 아이가 먹기 좋은 36.5℃로 유지해 주는 모유실감 체온 젓병 등이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경제포럼 조찬세미나

23일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상공회의소와 삼성경제연구소가 주관하는 제 136차 광주경제포럼 조찬세미나가 23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에는 권기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이 강사로 나서 'IT가 여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북 명의 위장 사업자 95건 적발

2년새 850% 급증

광주·전남북에서 소득을 숨기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제3자(이른바 바지사장)의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 2년간 무려 8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제청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

일제 점검 등 각종 세원관리 과정에서 명의 위장 사실이 드러나 적발된 사업자는 지난 2007년의 경우 440건이었으나 2008년 894건, 작년엔 1164건으로 계속 늘어 2년간 16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적발건수는 광주·전남·북 지역이 2007년 10건에서 작년 95건

으로 850%나 급증했으며 서울 지역 502%(2007년 48건→작년 289건), 인천·경기·강원지역 283%(2007년 80건→작년 306건), 대전·충남·북 지역 343%(2007년 30건→2009년 133건), 부산·경남지역 73%(2007년 101건→2009년 175건) 각각 늘었다. 국제청은 투명한 세원관리를 위해

명의위장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소득세, 부가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사업자 등록을 정정해 교부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매출 자료를 노출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이름으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등 이른바 '카드깡'수법을 사용하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건수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청은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연합뉴스

로또복권

(제415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7 17 20 26 30 40	24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334,182,407	8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0,825,997	35
3 5개 숫자 일치	1,120,927	1,587
4 4개 숫자 일치	50,000	71,409
5 3개 숫자 일치	5,000	1,114,259

팝콘복권

(제213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1조 322841
2	1억	5조 619898 5조 870319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각조 85768
5	50만	각조 5662
		각조 58
6	2천	각조 27
		각조 17
		각조 8
7	1천	각조 2
		각조 1

코스피지수 1,913.12 (-25.84)

코스닥지수 509.35 (-19.31)

금리 (국고채 3년) 3.46% (-0.14)

원·달러 환율 1,127.80원 (+20.50)

※수치는 12월 기준 1주전과 비교

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 꿈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할 짓!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초록우산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실천과 관심만이
소중한 아이들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10여년 동안 학대피해 아동을 돌보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이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와 함께 하는 꿈
초록우산

아동학대
신고전화
후원문의

1577-1391
(062)351-3513